



미 증시, 금리 상승 진정 속 기술주 강세로 반등

미국 증시 리뷰

20 일(목) 미국 증시는 전거래일 4 월 FOMC 의사록 공개 이후 시장금리 상승세가 진정된 가운데, 주간 실업지표 호조, 암호화폐 시장 반등으로 기술주 중심의 위험자산 선호현상을 확대시킴에 따라 상승 마감(다우 +0.6%, S&P500 +1.1%, 나스닥 +1.8%).

업종별로는 기술(+1.9%), 커뮤니케이션(+1.7%) 등 금리 상승세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테크 및 성장주들이 큰 폭 강세를 보였으며, 에너지(-0.1%), 소재(+0.1%), 산업재(+0.2%) 등 경기민감주들은 차익실현 여파로 부진한 모습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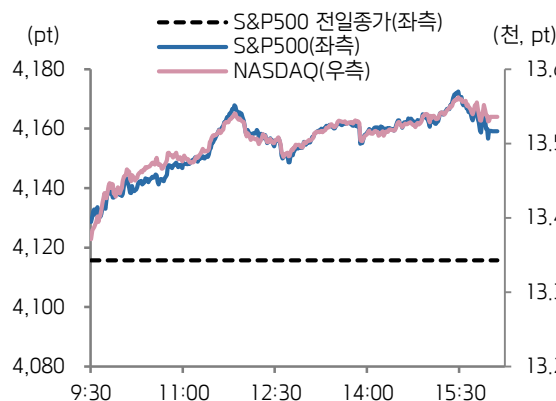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는 44.4 만건으로 전주(47.8 만건) 및 예상치(45.0 만건)를 모두 하회. 이는 작년 3 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경신한 것으로서, 고용시장의 회복세가 재차 탄력을 받고 있는 양상. 이 같은 고용 회복세에도 1 분기 뉴욕 연은의 대형은행 달러 대상 서베이에서 연준의 테이퍼링은 2022 년 1 분기, 금리 인상은 2023 년 3 분기로 컨센서스가 집계됐다는 점도 시장금리 하락세에 기여.

미국 증시 평가

5 월 이후 시장 변동성을 만들어낸 핵심 요인은 인플레이션 급등 불안감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참여자들도 해당 변수에 익숙해 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전일 발표된 5 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 내에서 가격 지불지수(기업의 비용 부담 지표)가 1980 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 가격수용지수(기업의 가격 전가 지표)가 1981 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 실물 경제 단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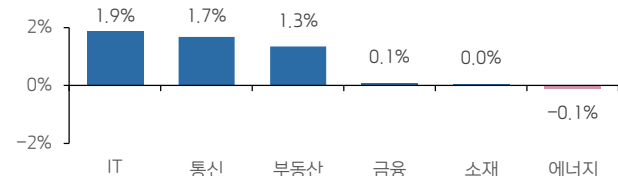
그러나 전일 미국 증시에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은 (4% 이상의 급등세가 지속되지 않는 이상) 인플레이션이 반복 노출된 재료 성격이 짙어지고 있음을 시사. 또한 인플레 불안 및 시장금리 안정 속 연초 이후 지속적인 아웃퍼폼을 해왔던 가치주에서 성장주로의 순환매 장세가 전개 여부도 향후 관전 포인트.

S&P500 일중 차트(5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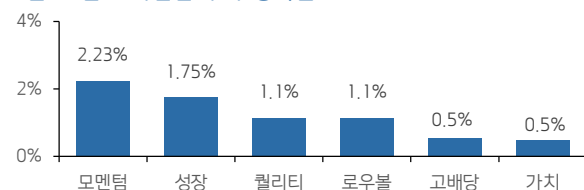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5월 20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5월 20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58%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58 %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62%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27.72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 월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가치주 혹은 경기 민감주에서 성장주, IT 주들로의 순환매 전개 여부
2. 외국인 순매도 강도 진정 및 과매도 인식에 따른 순매수 전환 가능성
3. SK 이노베이션발 화재에 따른 국내 배터리 밸류체인주들의 주가 상승 여부

한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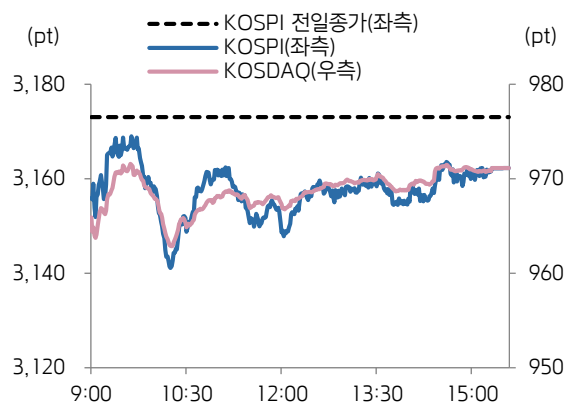
20 일(목) 한국 증시는 암호화폐 시장 폭락 여파, 원자재 가격 급락에 따른 경기 민감주 약세로 장 초반 하방 압력이 심화(코스피는 한 때 1% 넘게 하락). 그러나 전거래일 미국 증시에서 4 월 FOMC 의사록을 무난히 소화했다는 점을 주시한 가운데, 반도체, 2 차전자 포함 일부 대형주 위주로 저점 매수세가 유입된 영향에 힘입어 낙폭을 축소하며 제한적인 약세로 마감(코스피 -0.3%, 코스닥 +0.2%)

업종별로는 철강금속(-4.85%), 운수장비(-2.61%), 종이목재(-1.38%) 등 경기 민감주들이 약세를 보인 반면, 전기전자(+0.10%), 화학(+0.02%) 업종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임.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에서 각각 6,559 억원, 2,010 억원 동반 순매도에 나섰음에도, 개인이 8,854 억원 순매수하며 수급상 하단을 지지.

한국 증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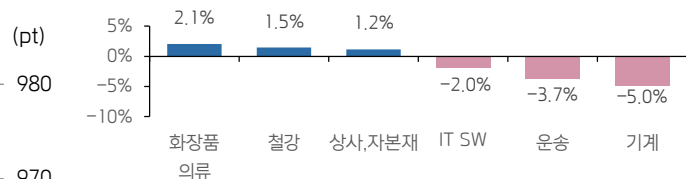
한국 증시는 미국 성장주, 기술주 강세 효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불안 진정 등에 힘입어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주요 암호화폐들이 추가적인 급락세 없이 반등세를 연출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한편, 국내 기업들의 수출 기저 효과 및 높은 수출 증가세를 둘러싼 지속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금일 발표되는 한국의 5 월 1~20 일 수출 결과에도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 또한 SK 이노베이션과 미국의 포드가 전기차 배터리 생산 목적의 조인트벤처 설립 MOU 를 체결했다는 소식은 관련 밸류체인주, 테마주들의 장중 주가 변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KOSPI & KOSDAQ 일중 차트(5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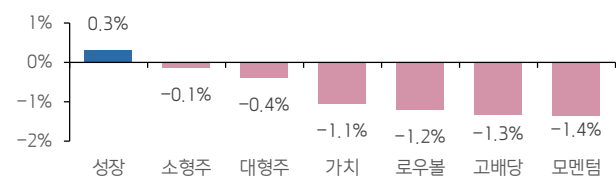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5월 20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5월 20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iwis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